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전우치전

| 작지 미상

핵심 정리

작품 분석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고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인물의 성격에 대해 대사를 통해 직접 제시하고 있다.(성격 제시 방법)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



사건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란 사람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이천 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 죄로 형벌을 받는다기에 탄식하고 있소.”

우치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 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장계창 장계창의 아내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정을 살피니,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우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감형관이 크게 도술로 착한 사람을 구하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을 강조함.(전기적 요소 반영)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 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 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연을 고했다.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이 없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소.”

우치가 이를 불쌍히 여겨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직아’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백 냥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백 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노모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 장계창과 한재경을 도와주는 전우치의 모습

반신반의하며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 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집 앞에는 동자를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그 사람이 시험 삼아 ‘고직아’ 하고 부르면,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다.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백 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 백 냥을 꺼내 와 앞에 놓았다.

작 품 개 관

- **갈래:** 고전소설, 도술 소설, 영웅 소설
- **성격:** 전기적, 영웅적
- **주제:** 빈민 구제와 당시의 정치 상황 비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시점
- **특징**
 - 실제 인물의 내력이 전설을 통해 소설화.
 - 홍길동전의 아류작으로 평가됨.
 - 사회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반영
 - 빈민 구제 사상과 개혁 사상의 반영

핵심 내용

- 실존 인물의 생애를 다룬 전기소설이자 영웅 소설
- 삽화 형식의 구성 방식으로 왕조의 지배 질서에 거역하는 영웅의 모습이 담김.
-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초인적 능력과 비현실적 인물을 등장시킴.
- 빈민구제와 약자 보호, 무능한 지배층 농락 등으로 서민의 소망을 반영함.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

- **일대기적 구성:** 주인공의 삶 전체를 다룸.
- **권선징악의 주제:**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림.
- **우연적 사건 전개:** 필연적 인과성이 결여됨.
- **행복한 결말:** 대부분 결말이 행복하게 끝남.('운영전'과 같은 예외적 작품도 있음)
-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이고 초월적 능력이 가능함.
-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작품에 직접 개입함.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전우치전

| 작지 미상

핵심 정리

작품 분석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직아' 하고 불러 은자 한 냥을 달라고 하여 하루씩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하기를, '은자 백 냥을 꾸어 쓰든 무슨 상관에 있으리오.' 하고 고직이를 불러 말했다.

어리석은 인물로 평가됨.

"쓸 곳이 있어 은자 백 냥을 먼저 꾸어 쓰려고 하노라."

고직이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직이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재경이 놀라서 고직을 불렀지만 아무

한재경의 비정상적 요구에 응하지 않음.

대답이 없자 크게 화가 나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때마침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집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직이 아뢰었다.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하옵니다."

돈을 빼서 준 것이 사실은 관아의 창고에서 빼온 것임을 알 수 있음.

호조 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하급 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 높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물었다.

한재경

"네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한재경을 도둑으로 인식하여 신분을 묻고 있음.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러느냐?"

재경은 아직 관아의 창고를 자신의 창고로 여기고 있음.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 판서에게 아뢰니, 호조 판서가 재경을 계단 아래에 꿰리고 꾸짖었다.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살펴보니 제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재경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내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아뢰어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호조 판서가 그 족자의 출처를 물었다.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아뢰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

"전우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 지 사오 개월 되었으며,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 금기를 어기고 욕심을 부리다 위험에 처함.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 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

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만 가득 따리를

전우치의 능력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전기적 요소가 반영되었음.(도술을 부려 은자를 청개구리와 뱀으로 바꿔버림.)

틀고 있었다. 호조 판서가 괴이하게 여겨 이 사연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홍길동전'과 '전우치전' 비교

공통점

- 도술에 뛰어난 주인공의 등장
- 빈민 구제와 사회 현실의 모순 비판

홍길동전

-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체 형식
- 사회 개혁과 이상국 건설 의지 반영

차이점

전우치전

- 도술 발휘의 삽화 형식으로 구성
- 왕권에 대한 저항은 있지만 개혁 의지가 약함.

'전우치전'의 작품 구조

처음

- 도술을 얻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삶
- 백성의 비참한 삶을 보고 각성함

중간

- 도술로 백성을 위한 징벌과 빈민 구제에 힘씀.
- 역모의 누명을 쓰지만 도술로 위기에서 벗어남.
- 상사병을 앓는 친구를 위해 수절 과부를 납치하려다 강림 도령에게 저지 당함.

끝

-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패하고는 그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 도를 닦음.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전우치전

| 작지 미상

핵심 정리

작품 분석

이때 각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나이다.”

또 각 군영에서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 있던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또 궁궐 내시가 보고하기를,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나이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
인을 해쳤나이다.”

하거늘, 임금께서 크게 놀라 활 잘 쏘는 궁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내니 궁녀
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차마 활을 쏘지-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
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궁녀를 앞질러 쓰라 하셨다. 이에 궁노수가 들어가 동시
에 활을 쏘려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니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가뭇 둔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한패이니 빨리 죽이옵소서.”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려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재경
이 간데없이 사라지니, 이는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금기를 어긴 재경마저 구해줌(갈등의 주체가 권력자와 전우치로 형성됨)

우치의 도술 행각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남을 말함.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가 드러남)



활을 쏘는 군사

궁녀들이 활에 맞지 않도록 우치가 능력을 발휘하여 구하고 있음(전기성)

▶ 약자를 돕는 전우치와 임금의 부정적 평가

- 작자 미상, 「전우치전」

핵심
POINT!

전체 줄거리

전우치는 자신을 감추는 재주가 있는 자였다. 당시 나라는 해적들의 횡포와 흉년으로 백성
들의 삶이 비참했다. 전우치는 공중에서 임금의 꿈에 나타나 옥황상제가 하늘에 태화궁을
지으려 황금 대들보 하나씩 만들도록 명했다고 전한다. 약속한 날에 대들보가 만들어지자
전우치는 이를 갖고 빈민을 구제한다. 왕은 속은 것을 알고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고 전우치
는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 병에 들어가 임금 앞에 선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우치를 죽
일 수 없게 되자 벼슬까지 주겠다고 회유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다
니며 어진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도술로 꾀려 주었다. 뒤늦
게 조정에 들어가 선전관이 되었지만 간신들의 역모로 체포되어 극형을 받자, 그림을 그리
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이하 생략)

작품의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실재하였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하며 쓴
소설이지만 그 도술 행각을 그린 내용이 대단히 비현
실적이며 초인적이고 황당무계하다. 그러나 작자는
당시의 부패한 정치와 당쟁을 풍자하고 그것을 흥미
본위의 표현 형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작품의 내용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전우치가 의협심
을 발휘하며 지방 정치의 부패성을 시정하고, 백성의
곤궁한 생활을 구제하고자 자기의 도술을 사용하다
가 나중에 서화담을 따라 태백산에 도를 닦고자 들어
갔다는 이야기다.

다분히 사회 혁명 사상을 고취하려고 기도(企圖)한
점 등에서 그 내용이 "홍길동전"의 그것과 매우 비슷
한 데가 있다. 그래서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의 작
자는 같은 사람인 허균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